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8호 [루게 제 25221호] 주제 105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따라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렬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 처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미처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겼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비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원수들의 비렬하고 치졸한 제재압살책동이 가중될수록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피로써 지키고 제힘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는 세상이 부럽도록 잘살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와 정신력은 천배만배로 강해지고 있다.



에서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배치하며 금릉2동굴로 뻗은 도로주변에 지대적특성과 조화되는 건물들을 일떠세우면 려명거리형성이 특색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세션소 등 공공건물들과 봉사당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를 21세기에 네트기결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만들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설계 및 시공단위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녹색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원수들의 반공화국제압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현지에 나오시어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동지, 김여정동지, 김창광동지가 동행하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형성과 조감도, 모형사관 등을 보시면서 려명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킬 거리로 일떠세우자면 거리형성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흥네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웅장화려한 고풍건물들로 건축군을 형성하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는 정중정보장의 원칙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제 등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건축물의부장식용 마감전체의 규격과 색깔, 문패 등을 다양화, 다색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에서의 최첨단방안을 적극 탐구동원하는것과 함께 설계부문과 시공단위, 감독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을 려명거리건설에 또다시 파견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이 사업에서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가 일떠세우면 우리가 최근 해마다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존건설공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주체조선의 건설속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특특히 보여주는데 정치적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작공의 첫 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

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철폐로 원수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통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를 올때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참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회세의 천출명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기 운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휘로운 앞날에 대한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백두의 칼바람마냥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이 불변의 진리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레인 세인 만마면방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세네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김일성김정일기념

리사회 공동리사장,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사회적발전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병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할 줄을 아시기를 간직하신의주시직관선진사 당세포비서 조귀남은 대중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직관선진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인민군대원호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섬으로써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천만군민을 투철한 반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할 열의밑에 계급교양지도국 산하단위 부원 김세준은 중앙계급교양반공수장에서 건설자들과 숨결을 같이 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해당화교류사 로동자 육원경은 반계급교양 의 열도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차례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계급교양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국제여행사 안내부원 한금복, 류경건설관리국 산하단위 동역원 김면희도 혁명적기상이 나타나는 전투현장에서 경제선동도 하고 건설자들에게 많은 자재도 넘겨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뜨거운 혁명적동지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닌 평양시구급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하지 않게 화상당한 환부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

주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려 그들을 다시 혁명초소에 세우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황해북도인민병원 책임의사 김명월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으로 수십년간 치료사업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주고 환자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에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총정의 70일전투의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

## 활화산처럼 떠오르는 결사관철의 불길

## 비단실생산 2배 달성

### 잠업비단공업국아래 공장들에서

#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기적창조해 간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접한 삼지연지구 칠경건설특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비례와 남조선적폐당에 대한 치솟는 중요과 보복의지를 안고 파강한 돌격전투를 틀어쥐고 칠경건설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부름이러면 한마음 단결력으로 일어서라 산도 옮기고 바다도 채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뚜렷한 전통이며 기질이다.》

칠경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과 지점들은 보통 해발 1000m가 넘는다는 용양이 흘러내려 바위와 절벽을 이룬 곳이 있는가 하면 암반이 전혀 없어 흙과 자갈로 뒤덮여 로반형성과 끝까지 불리한 지대가 적지 않다. 겨울이 깊어 습식공사에도 불리한하다.

## 들쭉는 건설장에서

### 발파소리는 울리지 않아도

로반천쪽에서 전개한 황해북도리단에서는 로반과 차골, 용백공사과제가 맡겨졌다. 그런데 공사는 전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이루어진 급경사에서 공사속도를 높이면 많은 발파를 진행해야 했다. 리단장 로혁영을 휴정민동무는 신통 기적을 내리지 못하였다. 건설장주변에 보이는 세

자강도리단에서 발파를 위한 경각음을 진행할 때였다. 공사장에 전기를 보내주던 발전기가 갑자기 멎었다. 발전기를 수리하자면 귀한 자재와 부속품이 필요하였다. 리단에서는 강제시 이를 것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였다. 정치부장 한영석동무가 먼 길을 떠났다. 12시간동안

들쭉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관리단 4대대 병설공작대 세 우물에서 생겨났다. 20여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왔는데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뭄과 겨울에는 물량이 줄어들어 시냇물까지 마셨던 것이다.

우수, 경첩에 대동강일음이 높다고 하지만 백두산기슭에는 눈, 얼음이 아직도 깔려있고 때없이 눈보라가 더진다. 그러나 총정의 70일 전투에 떨쳐나선 삼지연지구 칠경건설특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엄숙한 자연환경에서 도 주지없이 언 땅을 깨고 바위를 들부리며 백역전을 벌리고 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현장지휘부에서는 대담하고 공세적인 전투작전계획을 세웠다. 로반과 차골, 칠다리건설을 비롯한 기본공사들을 70일전투기간에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그 실천방도를 대공무전한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서 찾아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대담과현장과 차콜관통을 위한 전투장을 비롯한 공사장들에 나가 현실에서 결된 문제들을

알아보고 물어주면서 공사의 순차차를 바로 잡고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산석정지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창조된 항일의 괴여린 전구에서 우리 당이 결친 70일전투에 참가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 이들만에 왕복 2천리길을

자동차로 달려 강계에 도착하여 자재와 부속품을 구해가지고 현지에서 도착하기까지는 오백이름이 걸렸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한 경협동무는 휘청거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몇달만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조

드려 10여m길에서 샘물이 팔팔 솟아났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맞닿는 데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돌격대원들은 한증언이 달린 목욕탕을 지어놓고 자기들만이 아닌 마을사람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말밭만은 단단 식구들과 이야기조

드려 10여m길에서 샘물이 팔팔 솟아났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맞닿는 데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돌격대원들은 한증언이 달린 목욕탕을 지어놓고 자기들만이 아닌 마을사람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돌격대원들을 물심방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 70일전투로 들쭉는 전투장들마다에는 이런 글말이 나와 있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이 글말에는 예선-삼지연 넓은 칠경건설장에 애국총정의 고귀한 땀을 바침으로써 백두산전설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고 항일혁명전투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행복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그날을 앞당겨 줄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뜨겁게 맹목되고 있다.

혁명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대공무전한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반총공사량의 85%를 성취하고 있다. 각지의 편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들과 한전투에 섰고 광강공업대학 학생 조창미, 사리리예술학원 학생 차선경을 비롯한 전국 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돌격대원들을 물심방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 70일전투로 들쭉는 전투장들마다에는 이런 글말이 나와 있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이 글말에는 예선-삼지연 넓은 칠경건설장에 애국총정의 고귀한 땀을 바침으로써 백두산전설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고 항일혁명전투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행복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그날을 앞당겨 줄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뜨겁게 맹목되고 있다.

혁명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대공무전한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반총공사량의 85%를 성취하고 있다. 각지의 편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들과 한전투에 섰고 광강공업대학 학생 조창미, 사리리예술학원 학생 차선경을 비롯한 전국 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돌격대원들을 물심방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 70일전투로 들쭉는 전투장들마다에는 이런 글말이 나와 있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이 글말에는 예선-삼지연 넓은 칠경건설장에 애국총정의 고귀한 땀을 바침으로써 백두산전설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고 항일혁명전투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행복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그날을 앞당겨 줄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뜨겁게 맹목되고 있다.

혁명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대공무전한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반총공사량의 85%를 성취하고 있다. 각지의 편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들과 한전투에 섰고 광강공업대학 학생 조창미, 사리리예술학원 학생 차선경을 비롯한 전국 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돌격대원들을 물심방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 70일전투로 들쭉는 전투장들마다에는 이런 글말이 나와 있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이 글말에는 예선-삼지연 넓은 칠경건설장에 애국총정의 고귀한 땀을 바침으로써 백두산전설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고 항일혁명전투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행복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그날을 앞당겨 줄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뜨겁게 맹목되고 있다.

혁명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대공무전한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반총공사량의 85%를 성취하고 있다. 각지의 편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들과 한전투에 섰고 광강공업대학 학생 조창미, 사리리예술학원 학생 차선경을 비롯한 전국 수 많은

국 모든 일군들은 오늘의 생산돌격전인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 날뛰는 원수들과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일별, 주별, 월별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작성한 데 기초하여 들쭉는 생산현장마다에서 전투작전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해나가고 있다.

특히 김정순형양제사공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나서도록 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고 조건보장대책을 면밀히 따라내고 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어 김정순형양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주의적정열을 불태우며 비단실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매일 전투목표를

170% 넘게 수행하여 국적으로 제일먼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끝냈으며 그 기세를 계속 비약하고 있다. 김정순형양제사공장의 뒤를 바짝 따르고있는 함흥제사공장에서도 지난 3월 12일 상반년계획을 수행하였다.

김정순형양제사공장의 종업원들도 따라오라기, 파라배우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집단주의적정열을 불태우며 비단실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매일 전투목표를

## 현대화와 생산을 동시에 힘있게

### 평양 곡산 공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한 생산열기로 불어오고가는 평양곡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각들의 도발과 사상을 모조리 숙청하면서의지를 안고 현대화와 당과공정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작업의 무분별한 당국이 구도에 이를수록 철학자, 도발자들에게 철수를 내릴 목적의 기상안고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최야전투를 벌이면서 매일 밤이던 당과공정생산계획을 110% 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공공정의 종업원들이 전투목표를 매일 1.3배 이상 넘게 수행하면서 전투의 앙양에서 기세등게 내달려

공장의 당파직장 종업원들도 지금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이곳 직장 사생활업반원들은 비록 가중중공업이지만 열의의 의지를 안고 기대마다 단계를 보장하여 매일 작업반생산계획을 1.2배로 넘게 수행하고 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적들이 최후박약을 하여도 대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철학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절로공이 내달리고 있다.

전 해 영



신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인산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특

## 평양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

### 《시대와 청춘》 진행

조국보위의 최전열초소와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한 평양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 《시대와 청춘》이 11일부터 17일까지 청년문화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는 소중함 우리 삶의 미진을 백화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류매없는 침략전쟁광풍을 일으키며 최후박약을 하고는 비례와 괴리적폐당에 조신청년의 본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경제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장 서서 이룩하고야말 학생청년들의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시와 화합 《열망하던 때는 왔어라》로 시작된 모임에 학생청년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김창부, 김주혁을 비롯한 장안이 낳은 수령결사옹위의 총동맹을 받들기 위해 《참수적 전투》를 때비며 우리 혁명의 위와 같은 존엄을 최고수뇌부

를 감히 노리는 원수들이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다시 솟아나지 못하도록 선풍적인 불세대를 안고야말 같은 결의를 다지다.

불라는 조국과 어머니당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성이 거미치는 노래 《내 명명 지은 어머니당》이 울려 퍼지는 주조내에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수면인 랑속속 화국기를 김정은시대의 청년들이 통일연수회를 창조함으로써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창가자의 의의에 걸맞게 울려 퍼졌다.

취주악과 화합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모임은 무한대로 앙돋히는 청춘의 젊음을 작별하며 새로운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이름을 위원의 금별로 빛내어나갈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취주악과 화합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모임은 무한대로 앙돋히는 청춘의 젊음을 작별하며 새로운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이름을 위원의 금별로 빛내어나갈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취주악과 화합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모임은 무한대로 앙돋히는 청춘의 젊음을 작별하며 새로운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이름을 위원의 금별로 빛내어나갈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취주악과 화합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모임은 무한대로 앙돋히는 청춘의 젊음을 작별하며 새로운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이름을 위원의 금별로 빛내어나갈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취주악과 화합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모임은 무한대로 앙돋히는 청춘의 젊음을 작별하며 새로운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이름을 위원의 금별로 빛내어나갈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17일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리혜정 사회과학원 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과학, 교육, 출판, 보도, 혁명사적부서, 당일인양성 기관의 요원, 연구사, 강사, 기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보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전하철은 《자강력제일주의는 주체적혁명에 의거하여 자기 힘을 비양히 강화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자강력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믿음을 기초하여 자재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을 총동원, 총발동하여 자기 힘을 키워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려는 자주의의념과 민족자존의 기상이 맥박치는 필승의 혁명정신이라는 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목으로 김일성고급학교 강교장 부교수 정호영이 토론하였다. 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강력이라는 신념을 안겨 주기 위한 사상전을 강도높이 벌려 나가며 그들이 불거는 모든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태, 군인기질을 따라배워 자기 계승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금을 더욱 발전정취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게 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정도의 전기간 우리 인민을 투철한 혁명의식과 높은 창조력을 지닌 자주의정신으로 키워오셨으며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불타오르며 우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력자강의 력사, 세인을 경탄시키는 대고조의 력사를 수놓아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 론 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 힘으로써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자력자강의 마저로 산산히 깰수버리고 세계를 이루어가는 강국의 제부, 행복의 열매를 더 많이 창조하여 하부능력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요구라는 제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회인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연대표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국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찬을 들었다.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회인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연대표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국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찬을 들었다.

## 조로 경제적 문화적협조에 관한

### 합정체결 67돛에 즈음하여

### 로씨야대사관 연회 마련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7돛에 즈음하여 조로씨야연방대사관이 1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대의경제상, 군사총 위무성 부상, 황호남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

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대사관을 비롯한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 잠비아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잠비아에서 진행되는 국제대회 동맹 제 134차총회에 참

송배박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체육선수단 도착

조선학생체육선수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